



# 대학생들의 환경보호단

국민들의 폭발적인 환경욕구에 비해 환경문제는 점점 심화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환경이 변화되면 우리들의 행동거지도 달라져야 한다. 이미 전국 대학에 환경관련학파가 30여개나 된다. 이것은 환경문제의 복잡성·상호관련성 및 광역성을 감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늦게나마 이들 대학생들에게서 달라지는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배운 환경이론을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범국민 환경보전운동으로 정착될때까지 환경미화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첫 결성된 「전국 대학생 환경보호단」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환경문제를 거시적 차원에서 남북한 동질성으로 접근하는 의제로 남북한 교수·학생 학술 교류와 비무장지대에서의 생태계 공동조사 및 남북한 환경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내용을 몇가지 적어보기로 한다.

우선 첫째, 대학생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환경위기를 극복하려는 환경미화를 선택한 것이 무엇보다 강한 일이다.

환경미화운동(KKB:Keep Korea Beautiful)이란 대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을 미화함은 물론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여 현재인과 후세인들에게까지 물려줄 목적으로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모인 환경보전운동을 위한 자생적인 조직단체활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단체는 모든 국민이 주변환경을 스스로 개선·미화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일이 문화시민의 긍지임과 이러한 일이 국민·공공단체·국가의 의무임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학

安基熙 / 본협회 개발부장 · 행박



대학에서 배운 환경이론을 사회단체와 연계,  
 범국민 환경보전운동으로 정착될때 까지 환경미화  
 운동을 벌리겠다는 취지로 「전국 대학생  
 환경보호단」이 결성되었다.



술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사유화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명승절경지는 모든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심신 수련장으로 널리 제공될 수 있도록 영원히 보호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말 명승절경지등의 쾌적한 환경요소들은 공공개발대상과 기업이윤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청소년들의 안식처로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이미 미국, 영국, 북구제국, 일본, 대만등의 국가들은 그러한 자연경관 사적지는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장으로 널리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차원에서도 그러한 정책적

배려는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로, 이들 대학생들은 사후공해(오염) 방지에서 사전예방의 환경보전을 제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공해방지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아황산가스가 0.01ppm 내려간다고 해서 결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오염방지 차원에서 벗어나 국민의 다양한 환경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즉, 환경의 사전예방과 쾌적성 보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온 국민이 즐거운 환경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늘이 맑고, 싱그러운 공기를 숨쉬며, 나무가 우

## 환경문제는 환경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환경정책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환경정책선언을 촉구한다.

거지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강물은 고기가 뛰놀며 강바닥이 보여야 한다. 폐기물더미는 주변환경에서 없어야 하며 악취나 소음·진동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오염의: 총량규제와 상수원수의 종합적·근원적인 보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환경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발을 할 경우 지역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근본적인 피해대책과 그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환경건강피해보상법의 제정을 촉구까지 하고 있다.

세번째로, 대학생들이 스스로 터득한 환경지식과 기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능력으로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 교수·대학생 환경학술교류와 자연생태계를 공동조사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남북한 동질성으로서의 접근방법문제를 놓고 야단법석이다. 정치회담, 학생회담, 경제회담 모두 좋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일이 남북한 동질성을 향한 학술교류이다. 그중에서도 남북한 40년간이라는 현실의 벽을 허무는 환경 학술교류는 지난 40년간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조명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회담은 상반된 이념의 벽이 너무 두껍고, 대학생회담도 냉정을 잃고 순수 감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그 성과는 어렵다. 그러나 남북한을 자유로 넘나드는 공기, 물, 철새등의 논의의 위한 회담은 비정치적이라는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더우기 공기, 물, 철새의 공동조사를 위한 접근은 40여년간 이질화되어가는 양쪽 국민의 가슴에 큰 벽을 허물게 되고도 남을소

재가 된다.

네번째로, 이들 대학생 환경보호단은 동·서독 환경협정이 정치적 회담으로까지 이끈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선상에서 남북한 환경최고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문제는 환경정책 전환없이 불가능하므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환경정책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종합적·전체적·체계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부'의 성격을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한강, 공단조성등 무분별한 공공정책 개발에서 연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개발에는 충분한 국민참여가 보장되고 전문가 참여가 활성화되어 환경오염 내지는 환경과피가 사전에 최소화 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들 전국 대학생 환경보호단은 전국민 스스로 자기 주변 환경미화운동에 적극 참여할것을 권장하며 환경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변화되어 환경미화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것을 결의하고 있다.

전국 환경관련학과 대학생들은 주축이 되어 학교에서 배운 환경이론대로 환경문제를 오염보다 한 차원 높여 쾌적성 보호라는 환경미화운동으로 내건 스토런도 돋보인다.

또한 우리보다 덜 연구된 북한의 환경기술 및 환경문제까지를 언급하면서 남북한 동질성으로서의 환경접근으로 까지 시도한 점은 가히 환경정책의 전환논리로서도 수궁이 가는 점이라 할 수 있다. \*